

인문계

모의논술

수험번호 () 성명 ()

[문제] 지문 (가)를 참고하여 지문 (나)의 '은의 저주'와 지문 (다)의 화폐개혁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시사하는 바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 (라)의 [A]와 [B]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추론하시오. (1,200자, 100점)

(가)

<p>돈:</p> <p>☐【명사】</p> <p>①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되는 물건. 예전에는 조가비, 짐승의 가죽, 보석, 옷감, 농산물 따위를 이용하였으나 요즈음은 금, 은, 동 따위의 금속이나 종이를 이용하여 만들며 그 크기나 모양, 액수 따위는 일정한 법률에 의해 정한다.</p> <p>② 물건의 값</p> <p>③ 재물이나 재산을 달리 이르는 말</p> <p>④ 무엇을 하는 데 드는 비용</p>	<p>실물화폐:</p> <p>☐【명사】</p> <p>고유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갖는 물건이 화폐로 사용되는 것. 주로 물건 자체가 희소하거나 교환하기 편리하다는 특징을 갖는다.</p> <p>명목화폐:</p> <p>☐【명사】</p> <p>물건 고유의 가치가 아니라 역사적 관습이나 국가 법률의 권위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여 화폐로 사용되는 것.</p>
--	---

(나)

지리상의 발견으로 아메리카의 은이 유럽으로 유입되자 스페인은 은의 시대에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이 시기 역사를 말할 때 '은의 저주'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곤 한다. 그 이유는 은이 인류에게 부를 가져다준 동시에 끝없는 재난과 변수도 함께 가져왔기 때문이다. 특히 스페인이 받은 은의 혜택은 삽시간에 불행으로 바뀌고 말았다. 한 마디로 스페인에게 은은 하늘의 은총이 아니라 징벌이었던 셈이다.

은은 왜 저주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은 자체가 불안정한 금속이었기 때문이다.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은 은을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력적인 금속으로 여기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여겼다.

처음에 은은 스페인 왕실에 거대한 부를 가져다주었다. 16세기 후반에 은은 왕실 총 지출의 44%나 차지했다. 갑자기 전 유럽 대륙의 경제가 자극을 받았고 15세기 이래 유럽을 괴롭혀왔던 화폐 금속의 부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이 은은 스페인이 유럽의 전쟁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신속한 무역 확대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은 때문에 1540~1640년까지 약 1세기 동안 스페인은 물론 전 유럽의 물가는 4배나 뛰었고 영국의 생활비는 무려 8배나 올랐다. 물가가 어찌나 올랐던지 사람들은 이 시기를 가리켜 '가격혁명'이라고 부른다. 인플레이션 이후 1620~1640까지는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뒤따랐다.

원래 생산력 우위를 점하지 못했던 스페인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자 그 원인을 식민지로 향하는 상품 수출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왕실은 상품 수출 금지라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결국 스페인은 해외 식민지 시장을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에 갖다 바친 꼴이 되고 말았다. 16세기 들어 스페인은 인구가 급증했다. 그러나 식량 생산을 늘여나가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했고, 스페인 사람들은 은을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대거 이주했다.

이때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기술 혁명이 일어나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어 질 좋은 상품을 값싸게 만들어냈다. 스페인 소비자들은 외국 물건을 사는 것이 더욱 효율적임을 깨닫고 내수 산업을 팽개친 채 아메리카 대륙에서 들어온 은으로 외국 상품을 구매했다. 스페인의 은은 삽시간에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 빠져나갔다. 생각해보면 스페인은 식민지에서 기껏 부를 약탈해 와서 자국의 발전은커녕 발트 해 지역 자본가들의 경제력만 키운 셈이었다.

은은 스페인을 무너뜨리면서 최초의 '저주스런' 금속이 되었다. 스페인 사람들은 어쩌면 은의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끝까지 몰랐을 지도 모른다. 금과 은이 많다고 해서 한 나라가 더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 때문에 더 가난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금과 은을 부와 동일시하는 것은 인류의 오래된 착각이다. 돈은 부의 상징이자 부의 등가 교환물일 뿐 사회가 생산해내는 정신적, 물질적 부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금과 은 그리고 돈은 신비하면서도 허황된 것이다.

한 국가 혹은 전 세계의 화폐 체계를 지탱하는 것은 인류가 공유하는 일종의 환각, 즉 어떤 물건의 가치에 대한 가상의 이미지에 불과하다. 오늘날 금융 용어로 풀어보면 이 강력한 환각은 바로 화폐의 '신용'이다. 환각이 지탱하는 돈의 세계는 극도로 강해질 수도, 극도로 약해질 수도 있다. 은은 바로 이런 마술을 부려 스페인에 저주를 내렸고, 사람들은 벼락부자가 된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가난의 심연으로 걸어가야 했다.

(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 6월 9일 하오 7시 30분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긴급통화조치법을 통과시키고 10일을 기해 평가를 10배로 인상하는 통화개혁을 단행하였다. 전기 조치법에 의해 50환(圓) 이하의 소액 화폐는 1962년 7월 10일까지 액면가치의 10분의 일에 해당하는 신화폐와 병용 통용되나 그 밖의 모든 구화는 10일부터 유통이 금지되며 신화폐 단위는 원(圓)으로 개칭된다. 5월 15일 현재의 원화 통화량은 3398억 환이었다.

9일 밤 10시 화폐 개혁 단행이라는 라디오 방송을 들은 시민들의 표정은 어리둥절. 남대문 동대문

등 큰 시장은 10시 반을 전후하여 대부분 재빨리 문을 닫았고 잡화상, 쌀가게만이 몰려든 고객으로 법석이었다. 9일 밤 신문호외와 방송을 통하여 10대1로 화폐개혁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의 이에 대한 반향은 다음과 같다.

- (가정부인) 호외를 보고 깜짝 놀랐다, 너무 당황스러워 뭐라고 말할 수 없다.
- (다과점 점원)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장사가 앞으로 잘될지 무엇보다 염려스럽다.
- (빅토리 다과점주) 물건은 9일밤 자꾸 팔았는데 오늘부터 재료를 살 수 없으니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염

려된다. 무엇보다도 쌀을 사야 할 텐데 쌀가게에 가도 팔지 않으니 아침부터 끼니가 곤란하게 되었다.

- (버스 1597번 여성 차창) 지금이야 알았다. 신환짜리를 받아야 하는지 어쩐지 어리둥절해서 통 모르겠다.
- (공무원) 월급쟁이이므로 화폐개혁을 했다하여 아무런 타격이 없다. 당장 쌀 문제가 걱정이다.
- (가정부인) 빚을 내어 생활에 보태오던 것이 이렇게 되면 당장 빚을 낼 곳이 없어 생활이 걱정이 된다.

-00신문, 1962년 6월 10일

*1962년 6월 10일 화폐 개혁 관련 신문 보도문에서 발췌

(라)

[A]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2018년 초 가격 변동: 암호화폐는 화폐가치가 디지털 정보 형태로 온라인 상에 분산 저장되며, 원래 지폐나 동전처럼 지불 수단으로 개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국가가 보증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불 수단으로는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B] '마리아 테레지아 은화': 18세기 오스트리아 여제의 상을 담고 있는 은화. 원래 오스트리아에서 제작, 활용되다가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1854년 법정화폐의 지위를 상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화는 20세기 전반까지 아프리카와 서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 지불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